

#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본격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20개 추가 지정...4년간 2천 곳 육성 기업 고도화 등 4개 분야 70억원 지원...각종 혜택도

전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예비사회적기업 20개를 새로 지정하고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145개를 선정해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 장비 확충, 기업 고도화 등을 위해 총 7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전통놀이 교육 및 놀이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하는 우리노리협동조합, 전통무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치이름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농수산물을 가공·유통하는 ㈜뽕돌바다사람들, 농업회사법인 ㈜나주시골농장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도 선정됐다.

이들 예비 사회적기업은 2019년 상반기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 시설장비 등의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공공구매 우선 구매 혜택도 주어진다. 전남도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사업을 심사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옐로우지브라 등 51개 기업에 368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비 53억 원을, ㈜미루나무 등 30개 기업에 7억 원의 사업 개발비를, 사단법인 건강나눔 등 48개 기업에 6억 원의 시설장비비를, 유비에코 등 16개 기업에 4억 원의 고도화사업비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선7기 처음 시작하는 '사회적경

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이 종료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말 기준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은 155개로 연매출 1천354억 원에 고용 인원 1천254명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률이 75%나 된다. 전남도는 민선7기 4년 동안 사회적기업 300개 등 사회적경제기업 2천 개를 육성해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공동체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전남도 인구문제 극복 시책 우수 행안부 경진서 순천·광양 포함 전국 11건 본선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순천시의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과 광양시의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 시책을 포함해 전국 11건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해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책이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책이다. 전남도는 인구문제 극복 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난달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자체 경진대회를 열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전남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시책 25건에 대해 교수, 보육 전문가,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심사와 컨설팅을 거쳐 5건을 선정, 수정·보완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이 중 2건이 선정되는 결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발표 대회를 갖고 최종 순위를 가를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지자체는 대통령 표창과 1억 7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군의 좋은 시책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고 다른 시·도에 전파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25일까지 힐링농업체험장 국화정원 개방

광주시는 광산구 평동로(용곡동)에 위치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힐링농업체험장 내 국화정원이 25일까지 개방된다고 11일 밝혔다. 늦가을 향기를 머금은 국화정원은 그란 타운틴, 프렌프, 로잔나, 마운트 등 여러 색감의 국화 품종 3만본으로 꾸며졌다. 국화정원 옆에서는 백향, 아스타, 황금 사철, 제라늄 등으로 만든 식물터널과 핑크롤리, 다육식물, 허브, 무화과, 감귤나무로 꾸며진 자연테마식물원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홍보관에서는 광주 대표 농산물을 전시하고 트리아트와 체험형 미디어아트도 즐길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시는 광산구 평동로(용곡동)에 위치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힐링농업체험장 내 국화정원이 25일까지 개방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힐링농업체험장 내 국화정원에 대형색색 다양한 꽃이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일자리 창출·질 개선 정책 발굴 일자리위원회 청년·여성분과위원회 본격 활동

광주시는 민선7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정책 발굴 등 역할을 맡을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의 청년분과위원회와 여성분과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일자리사업을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간 연계를 위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산업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마련하고, 9월에 공모와 추천을 거쳐 각각 위원 11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분과위원회는 7일, 여성분과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 추진 경과 설명, 민간위원 위촉, 2018년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및 2019년 사업계획 보고, 위원 간 일자리사업 관련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청년분과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부기철 조선대 교수를 선임하고, 학계 2명, 청년관련단체 2명, 청년고용우수기업 1명, 창업 기업 1명 등 청년일자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2019년에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취업시장 진입제고를 위한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등 6개 사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등 10개 사업, 청년창업 인센티브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김신희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선임하고, 민선7기 여성일자리 추진 방향 설명과 함께 여성일자리에 관해 의견도 나눴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분과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당사자인 청년층과 여성의 목소리와 사업 아이디어를 듣는 등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광산구, 빅데이터 분석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막는다

### 어린이 교통사고 64% 보호구역 안... '노란 발자국' 안전시설 설치 확대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광산구 데이터융합팀은 11일 도로교통공단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광산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24건 가운데 64.5%(80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300m 안에서 발생했다고 밝

혔다. '보호구역 내 사고로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상을 당한 어린이는 19명, 경상 환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광산구에 주소를 둔 초등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1천909명인데 절반이 넘는 1만6천713명(52.4%)이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산다.

구는 사고지점 도로 위험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 초등생 비율 등을 조합해 횡단보도 안전시설물인 노란 발자국 설치 지수를 산출했다. 큰별초(20.5), 선장초(13.7), 신장초(12.4) 등 순으로 노란 발자국 설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학교 주변에서는 최근 2년간 8건

씩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광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초등학교 10곳을 노란 발자국 설치 구간으로 지정했다. 노란 발자국은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 1m 밖 바닥에 발자국 모양 스티커를 붙여 어린이가 안전한 구역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교통시설물이다. 구는 오는 14일 큰별초를 시작으로 노란 발자국 설치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고훈석 기자 ghs@

**기사제보 227-0000**

Coming Soon  
11월 14일  
경제